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4500호 2020년 8월 3일 월요일

[산업]
삼성 노하우 전수받은 화진산업 가보니
06

[라이프]
호캉스 인기에 파자마룩 뜬다
L1

백제의 길… 왕가의 길…
문화유산 따라 안전한 여름나기

SNS 인기 스폿인 경주 대릉원 내 천마총. /이민희 기자

메트로 트래블

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

언택트 문화유산 방문코스 7선 공개 추억 쌓는 '스탬프 북 찍기' 행사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들이 코로나19를 피해 전국 각지의 문화유산에서 안전하게 언택트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7개 '한국 문화유산 방문코스'를 2일 밝혔다.

공개된 '문화유산 방문코스'는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거점들로 코로나 여파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언택트 문화에 적합한 장소들이다. 1박 2일과 2박 3일 일정으로 구성된 코스는 총 7개 코스다.

'천년 정신의 길'은 천년고도 경주와 우리나라의 정신문화 수도인 안동의 대표 명소들이 포함되어있으며, 특히 대릉원 일대는 4계절 내내 아름다운 장소로서 SNS에서도 인기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백제 고도의 길'은 충남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을 통해 백제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코스로 동선이 짧아 1박 2일로도 충분히 백제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소릿길'은 전북과 전남 지역의 우리 옛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코스로, 우리나라의 전통소리인 '남도민요'를 경험할 수 있다.

'설화와 자연의 길'은 전설을 품은 세계유산 제주도의 자연과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들로 구성되었다.

'왕가의 길'은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루 느낄 수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궁궐과 산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교통과 관광, 숙박 인프라가 잘 발달한 수도권 지역이라 예산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서원의 길'과 '수행의 길'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산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성리학적 세계관과 선비정신, '불교'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는 '문화유산 스탬프 북'찍기 행사도 진행한다. 스탬프 북은 경복궁, 창덕궁 내 문화상품관 및 충무로에 위치한 한국의 집을 비롯하여 각 거점 지역 문화유산 비치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불국사, 창덕궁 등 각 문화유산의 특징을 담은 도장도 받을 수 있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에 그만이다. 스탬프 북 출시를 기념해 선착순 이벤트도 진행한다. 스탬프 3개 획득 시 온열안대 2개(10,000명), 3코스 10개 이상은 메쉬파우치(1,500명), 5코스 20개 이상은 전통문화테마숍 홈페이지 내 상품(최대 10만원, 500명)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2020년 문화유산 스토리 공모전'도 추진한다. /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

제주라프, '디지털 라이트 페스타' 개최

세계 유명작가 예술작품 디지털로 코로나로 중단했던 전시 SNS서 공개

제주라프가 최근 제주시 조천읍 일대를 미디어 팝아트 빌리지로 조성하는 등의 개편작업을 마치고 새롭게 오픈했다. /제주라프

예술, F&B, 숙박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제주라프(대표 이원광, 전찬민)가 세계 유명 작가들의 예술작품을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디지털 라이트 페스타'를 오는 12월 31일 까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라프는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브루스 먼로의 'Field of Light'를 세계 3대 (호주 울룰루, 미국 캘리포니아 센세리오, 대한민국 제주)영구 전시 작품으로 추진하면서 세계 정상급 작가 7명의 14개 조명 작품을 전시했으나, 코로나19 및 내부 행정적 사정 등으로 인해 전시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언택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작가들과 제휴를 맺고 작품을 디지털로 편성하는 등의 노력으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디지털 라이트 페스타를 개최하게 됐다.

디지털 라이트 페스타에 소개되는 작품과 작가의 면면은 화려하다. 뉴욕타임즈가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선정한 브루스 먼로의 작품 'Oreum', 'Water-Towers', 도쿄올림픽 대표 작가로도 선정된 젠 르윈의 'The Pool(Reflect)', 미국의 허드슨야드 프로젝트, 브룩클린 다리 등에 설치되어 화제가 된 톰 푸루윈의 '오두막' 작품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팝아트 작가 아트놈의 팝아트 작품 및 곽철안 상명대 교수의 '형태의 근원', 이병찬 작가의 '어반 크리에이터'등 빛과 색을 주제로 한 국내외 작가 12명의 20여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민희 기자

싱가포르 관광청

관광 장려 '다시 회복하는 싱가포르' 캠페인

현지 라이프스타일·관광산업 지원

싱가포르관광청 '다시 회복하는 싱가포르'캠페인 론칭. /싱가포르관광청

싱가포르가 현지 라이프스타일 및 관광상품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관광청(STB),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센토사 개발 공사는 현지 라이프스타일 및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다시 회복하는 싱가포르'(SingapoRediscovers)캠페인 론칭을 지난달 말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캠페인은 싱가포르 자국민 대상으로 싱가포르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캠페인이다. 관련 기관들은 이번 캠페인 및 마케팅 목표를 위해 약 390억원 (4500만 싱가포르달러)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라이프스타일 및 관광 산업, 비즈니스 협회, 지역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폭넓은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독특하고 가치 있는 체험 활동, 패키지 및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회복하는 싱가포르'캠페인은 앞으로 약 9개월간 진행되며, 더 많은 활동과 콘텐츠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민희 기자

남해의 보석 거제·통영, '비행기 타고 가요'

나라투어

통영·거제 1박2일 여행상품 출시

한려수도 조망 통영 케이블카 /통영시

동양의 나폴리 거제·통영이 경상남도 관광의 중심으로 부상중이다.

국내여행이 떠오르고 있는 시점, 국내여행 전문 나라투어(나라여행)가 '비행기를타고 편리하게 떠날 수 있는 통영·거제 1박2일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상남도의 도움을 받아 특별 요금을 편성한 '통영·거제도 1박2일 여행상품'은 짧지만 또 다른 힐링의 대안으로 떠오를 분위기다.

첫째날 일정은 김포에서 국내선 티웨이항공을 타고 부산(김해)공항에 도착, 버스에 탑승해 해저터널인 거가대교를 통과 거제도에 도착한다.

거제도 해금강 유람선을 이용하여 십자동굴을 관람 한 후 보물섬 외도 보타니아를 보고 통영으로 이동, 동피랑 마을 이용후 강구항(중앙시장)에서 자유시간을 갖는다.

둘째날은 통영 앞바다 아름다운 섬 투어에 나선다. 바다백리단길 4구간 에코아일랜드 '연대도'러블리 5섬여행, 연대도 지게길과 만지도를 연결하는 출렁다리체험, 네분의 전 대통령이 다녀간 그림같은 한림도 유람, 통영 시내투어 미륵도 일주관광, 통영케이블카 탑승 등 일정은 오히려 너무 빡빡하다.

특히 통영케이블카를 타고 10분 오르면 아름다운 통영항과 한려수도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관광 일정을 소화한 후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올라오는 스케줄이다. 식사는 현지 한식으로 3식이 제공된다. 출발은 매일 출발 가능하며 1인 참가비는 22만9000원 부터다. /이민희 기자

제주신화월드-스튜디오드래곤

복합리조트, 드라마스튜디오와 콘텐츠 제작

공동사업 개발 업무협약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는 드라마 스튜디오 '스튜디오드래곤'과 손을 잡고 향후 공동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양사의 이번 파트너십은 '스튜디오드래곤'의 지식재산권(IP)과 제주신화월드가 보유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사는 추후 협의를 통해 드라마 캐릭터, 스토리, 미술디자인 등 '스튜디오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IP를 제주신화월드의 객실 상품, 테마파크 및 전시공간, 식음 매장 등 다양한 사업군에 연계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신화월드 에드먼드 윙 사장은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체험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며 "제주신화월드의 상품 및 서비스와 스튜디오드래곤의 K드라마 콘텐츠를 결합한다면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희 기자